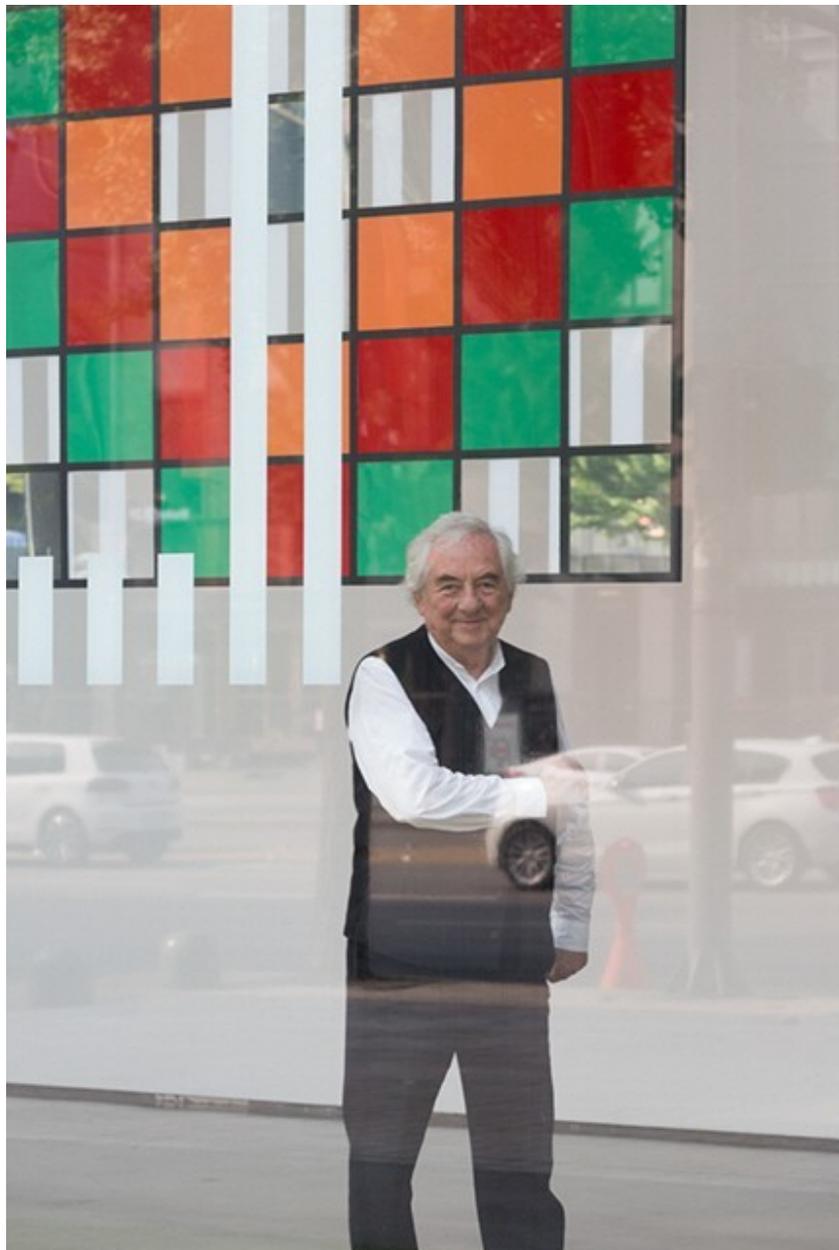


# 유리창으로 들어와 작품이 된 '서울'

기사입력 2015-06-19 06:41

- 다니엘 뷔렌 '공간의 미학' 전
- '줄무늬띠' 유명 프랑스 현대미술가
- 전시장 공간 특성 반영한
- '서울넘버6' 등 신작 23점
- 8월8일까지 313아트프로젝트



프랑스 현대미술가 다니엘 뷔렌이 국내 첫 개인전을 여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서울 넘버6'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건물 외부의 대형 유리창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유리창에 반사되는 풍경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삼았다(사진=313아트프로젝트).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작품을 볼 때 관람객은 단순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적극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3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다니엘 뷔렌(77)은 프랑스 현대미술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이다.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뜰리에에르메스 개관전에 참여하면서다. 같은 해 부암동 환기미술관의 '공간의 시학' 전에도 참여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젊은 감각'의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뷔렌이 국내 첫 개인전 '공간의 미학' 전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열고 있다. 뷔렌은 제작방식이 독특하다. 작업실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할 장소에서 영감을 받아 그 현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제작한다. 이번 전시에서도 갤러리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신작 23점을 전시장 내에서 직접 제작해 선보였다. '줄무늬띠'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 만큼 이번 전시에서도 사각형의 원색·투명아크릴판과 거울을 폭 8.7cm의 흑백 줄무늬 안에 넣어 모자이크처럼 조합해 만들었다.

최근 전시장에서 만난 뷔렌은 "갤러리 건물 전면의 대형창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다"며 "큰 창을 통해 갤러리 안도 볼 수 있지만 거울에 반사되는 거리의 풍경도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서울 넘버6'는 정사각형 대형 철제 구조물 안에 49개의 작은 정사각형 아크릴 패널과 거울을 넣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낸 것. 갤러리 외부의 인도에서 보면 건물과 작품이 상호 교감하듯 어울린다.

뷔렌은 "작품을 제작할 때 공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거울을 이용해 주변 도시 경관을 갤러리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자연광을 이용해 줄무늬가 새겨진 작품을 전시장 벽면 위로 투영하는 방법을 썼다"고 귀띔했다.

뷔렌은 1986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2년에는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전시를 열었고 2005년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다. 2012년에도 파리 그랑팔레에서 '모뉴멘타' 전을 열어 '영원히 늙지 않는 예술가'임을 증명했다.

뷔렌에게 오늘의 명성을 가져다준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에 대해 물었다. "비엔날레의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다. 젊은 작가들은 쉽게 초대받을 수 없게 된 구조라 수상은 고마웠지만 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8월 8일까지. 02-3446-3137.

김용운 (lucky@edaily.co.kr)

[종합 경제 뉴스 이데일리 모바일 웹][이데일리 TV][이데일리 ON][MP트래블러][마켓포인트][투자정보 앱 투자플러스][이데일리 창업]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3281771>

---